

물리치료사의 직업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정형도수치료 직무 중심으로 -

박윤기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A Study on Job and Task Satisfaction of Physiotherapist -Focusing on Employees in 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Youn-ki Park

Dept. of Physical Therapy, Daegu Health College

Key Words:

Job,
Orthopedic
manual
therapy,
Physiotherapist,
Satisfaction,
Task

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determine the job and task satisfaction of physiotherapists. These are important factors because they are directly connected to both morale and work efficiency.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9th, 2013 to April 15th, 2013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rst, Cronbach Alpha coefficient was used to evaluate date reliability. Further data analysis use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o determine frequency and satisfaction for each characteristic.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of job and task satisfaction, T-test and an analysis of variance were performed. Also,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a relation between job satisfaction of physiotherapist and task satisfaction of orthopaedic physical therapy. **Result:** This survey includes results from 197 physiotherapists who engage in orthopaedic physical therapy from major, medium and small citi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include: 112 males (56.9%), 85 females (43.1%); 123 in their twenties (62.4%), 56 in their thirties (28.4%), and 18 over forty (9.1%); 156 had less than five years work experience in orthopaedics, 25 had six to ten years, and 16 had more than eleven years work experience. In the physiotherapist's job satisfaction survey (out of 5), males averaged 3.71 and females averaged 3.43. Individuals with less than five years in the career averaged 3.5, 3.69 for between 6 to 10 years in career, 3.87 for over 11 years in career; thi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Results of the sub-factors of job satisfaction were 3.81 for self-esteem and 3.21 for prospect of occupation. Results of task satisfaction in orthopaedic therap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4.03 for males and 3.66 for females. For sub-factors of task satisfaction scores were 3.81 for vision, 4.29 for task adoption, and 3.57 for task recognition. **Conclusion:** Physiotherapists will be satisfied when their motivation to work and morale are increased by concerns such as improving the education environment, expert physiotherapist adoption issue, and medical law revision.

I. 서론

현대산업 사회에 살고 있는 근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므로 직업은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김명훈, 2001)을 알 수 있으며,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는 사람에 따라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우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며, 또한 정년 때까지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지역적 위치와 종업원 복지, 직업에 대한 애착과 하는 일이 즐거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직업을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한다면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말한다(이화식 등, 20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교신저자: 박윤기(대구보건대학교, pyk@dhc.ac.kr)
논문접수일: 2013.03.27, 논문수정일: 2013.04.20,
개재확정일: 2013.04.21

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 관리 기타 물리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직업으로 단순한 기술직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섬세하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전문직종(박성하 등, 2002)이며, 특히 물리치료는 치료과정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환자와의 접촉시간도 다른 의료기사에 비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인적자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는 직무의 중요성과 전문적으로 인정받을 때와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할 때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전제균, 1991)으로 나타나며, 물리치료사의 직무 만족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작용(문제강 등, 2010)하게 된다고 하겠다. 또한 직업 만족도는 조직의 이익실현의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의 가치실현과 삶의 질과도 관계하는 문제(최익숙 등, 2011)이기도 하며, 직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느끼는 직무만족은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배원식 등, 2011)이라고 하였다. 권미지 등(2003)은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친절도가 향상되고 환자의 만족도가 증가되기에 물리치료사들의 직업의식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많았으나,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는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물리치료사의 직업과 정형도수치료의 직무 만족도간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물리치료사의 직업과 정형도수치료의 직무에 대한 여건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설문지는 이화식 등(2012)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에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자긍심 요인(5문항), 직업비전 요인(3문항) 등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만족도에서는 직무비전 요인(6문항), 직무도입 요인(3문항), 직무 인지도 요인(3문항)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를 부여하고 부정적인 문항은 역방향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 및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며, 정형도수치료직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201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201매의 설문지 중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부실하여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97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물리치료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 문항은 자긍심 요인(5문항), 직업비전 요인(3문항) 등 2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 총 8개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채점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였고, 직업에 대한 확신과 만족감이 높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짐을 의미한다. 설문지에서의 자긍심 요인과 직업비전 요인에 대한 Cronbach α 의 값은 .87과 .81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물리치료사의 직무(정형도수치료영역)에 대한 만족도

정형도수치료영역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직무비전 요인과 직무도입문항의 채점은 5점 척도로 직업만족도와 동일하게 채점하였으나, 직무인지도에 대한 문항에 대한 채점은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렇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4점, "매우 그렇지 않다"는 5점으로 역 채점 하였다. 직무 만족도 조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직무비전 요인(6문항)은 .817, 직무도입 요인(3문항)은 .783, 직무 인지도 요인(3문항)은 .566으로 나타나 만족도 조사는 신뢰할 수 있음으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3년 3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 기입식설문지(self-administrat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전에 조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조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에 동의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하고 작성토록 하여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먼저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Cronbach α 신뢰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특성별 빈도분석과 만족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고, 특성별 직업만족도와 직무만족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물리치료사 직업만족도와 정형도수치료 직무만족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설문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연구대상자는 197명으로 남자가 112명(56.9%), 여자 85명(43.1%)이었다. 나이는 20세-29세 123명(62.4%), 30-39세 56명(28.4%), 40세 이상 18명(9.1%)이었으며, 물리치료사 경력으로는 5년 이하 132명(67.0%), 6-10년 40명(20.3%), 11년 이상 25명(12.7%)이었다. 정형도수치료경력으로는 5년 이하가 156명(79.2%)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25명(12.7%), 11년 이상 16명(8.1%) 순이었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haracteristics	N	%	
성별	남자	112	56.9
	여자	85	43.1
연령	20-29세	123	62.4
	30-39세	56	28.4
	40세 이상	18	9.1
물리치료사 경력	5년 이하	132	67.0
	6-10년	40	20.3
	11년 이상	25	12.7
정형도수 치료 경력	5년 이하	156	79.2
	6-10년	25	12.7
	11년 이상	16	8.1
계	197	100	

2.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

1) 일반특성별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한 만족도

a. 성별직업 만족도

성별에 따른 직업 만족도(5점 만점) 조사에서 남자는 3.71점, 여자는 3.43점으로 유의한 차이($p < .01$)가 있었다.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의 항목에서는 남자 4.10점, 여자 3.76점,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남자가 4.01점, 여자가 3.59점, "나는 물리치료사로

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 한다"에서는 남자 3.85점, 여자 3.46점,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남자 3.92점, 여자 3.52점으로 각각 유의한 차이($p < .01$)가 있었다.

또한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에서는 남자 3.94점, 여자 3.72점으로 유의한 차이($p < .05$)를 보였으나,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항에서 남자에서는 각각 3.24점, 3.67점, 2.95점, 여자에서는 각각 3.05점, 3.67점, 2.72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2).

b. 연령별 직업 만족도

연령별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20-29세의 경우 3.54점, 30세-39세는 3.57점, 40세 이상은 3.93점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만족도 하위요인으로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에서 20-29세의 경우 3.71점, 30세-39세는 3.95점, 40세 이상은 4.28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 < 0.01$).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3.84점, 30세-39세는 3.73점, 40세 이상은 4.22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3.90점, 30세-39세는 3.98점, 40세 이상은 4.22점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3.17점, 30세-39세는 3.04점, 40세 이상은 3.44점이었으며,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20-29세의 경우 3.67점, 30세-39세는 3.61점, 40세 이상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3.60점, 30세-39세는 3.59점, 40세 이상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는 20-29세의 경우 3.69점, 30세-39세는 3.79점, 40세 이상은 4.00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2.77점, 30세-39세는 2.88점, 40세 이상은 3.2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2. Job(physical therapist) satisfaction of gender

Characteristics	Male	Female	t-value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4.10±.710 ^a	3.76±.734	3.22**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	4.01±.729	3.59±.761	3.94**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24±1.05	3.05±.950	1.34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85±.796	3.46±.765	3.46**
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67±.884	3.59±.745	.68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94±.809	3.72±.629	2.08*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	3.92±.840	3.52±.781	3.43**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	2.95±1.16	2.72±1.02	1.44
계	3.71±.683	3.43±.576	3.09**

^aM±SD, **p<.01, *p<.05

Table 3. Job(physical therapist) satisfaction of age

Characteristics	20-29	30-39	over 40	F-value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3.90±.72 ^a	3.98±.82	4.22±.55	1.54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	3.71±.78	3.95±.75	4.28±.58	5.49**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17±.94	3.04±1.14	3.44±1.04	1.15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67±.75	3.61±.91	4.00±.77	1.68
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60±.80	3.59±.83	4.00±.97	1.96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84±.67	3.73±.88	4.22±.65	3.04*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	3.69±.78	3.79±.95	4.00±.84	1.16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	2.77±1.09	2.88±1.11	3.28±1.13	1.68
계	3.54±.59	3.57±.75	3.93±.66	2.84

^aM±SD, **p<.01, *p<.05

c. 근무경력별 직업 만족도

근무경력별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5년 이하의 경우 3.50점, 6~10년은 3.69점, 11년 이상은 3.87점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직업만족도 하위요인으로 “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53점, 6~10년은 3.70점, 11년 이상은 4.08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62점, 6~10년은 4.00점, 11년 이상은 4.00점,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는 5년 이하의 경우 2.70점, 6~10년은 3.10점, 11년 이상은 3.24점으로 낮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92점, 6~10년은 3.93점, 11년 이상은 4.20점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는 5년 이하의 경우 3.77점, 6~10년은 3.88점, 11년 이상은 4.08점으로,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5년 이하의 경우 3.08점, 6-10년은 3.25점, 11년 이상은 3.40점으로 나타났다. 또

한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5년 이하의 경우 3.62점, 6-10년은 3.80점, 11년 이상은 3.80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5년 이하의 경우 3.78점, 6-10년은 3.85점, 11년 이상은 4.16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4).

Table 4. Job(physical therapist) satisfaction of Previous work experience

Characteristics	<5years	6-10years	>11years	F-value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3.92±.72	3.93±.86	4.20±.58	1.60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	3.77±.77	3.88±.79	4.08±.70	1.87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08±.95	3.25±1.13	3.40±1.12	1.25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62±.79	3.80±.82	3.80±.87	1.08
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53±.82	3.70±.76	4.08±.81	5.01**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78±.75	3.85±.74	4.16±.69	2.80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	3.62±.82	4.00±.82	4.00±.87	4.63*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	2.70±1.06	3.10±1.15	3.24±1.13	3.96*
계	3.50±.622	3.69±.69	3.87±.68	4.07*

^aM±SD, ** : p<.01, *p<.05

2) 직업만족도의 하위 요인별 만족도

a.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한 자긍심

물리치료사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자긍심 요인(5점 만점)은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에서는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가 3.95점,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가 3.84점, “나는 나의 직업(물리

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가 3.83점,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가 3.75점,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68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Job(physical therapist) satisfaction of Self-esteem factor

Characteristics	M±SD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3.95±.74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에 대한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다.	3.83±.77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내 스스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68±.80
나는 나의 일(물리치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84±.74
나는 항상 국민건강보건 향상에 일조한다고 생각한다.	3.75±.84
계	3.81±.63

Table 6. Job(physical therapist) satisfaction of Vision factor

Characteristics	M±SD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3.16 ± 1.01
나는 물리치료사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3.63 ± .83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	2.85 ± 1.11
계	3.21 ± .84

b.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한 비전

물리치료사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직업비전 요인(5점 만점)은 3.21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에서는 “나는 물리치료사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가 3.63점,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가 3.16점,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에서는 2.85점으로 나타났다(Table 6).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의 항목에서는 남자가 4.38점, 여자는 4.01점,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는 남자 3.94점, 여자 3.35점, “나는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 한다”에서는 남자 4.48점, 여자 4.14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에서는 남자가 4.44점, 여자는 4.13점이었으며,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의 부정적 질문(역 채점)에서는 남자는 3.79점, 여자 3.40점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p<.01)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형도수치료의 직무 만족도

1) 일반특성별 정형도수치료 직무 만족도

a. 성별직무 만족도

성별 정형도수치료직무 만족도(5점 만점) 조사에서 남자는 4.03점, 여자는 3.6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하위 항목 중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에서 남자는 4.17점, 여자는 3.80점이며,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남자는 3.64점, 여자는 2.87점으로 나타났다. 또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남자 4.25점, 여자 3.88점이었으며,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에서는 남자 4.01점, 여자 3.66점이었다.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또한 “나는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 싶다”에서는 남자는 4.00점, 여자는 3.74점이었으며,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는 부정적 질문(역 채점)에서는 남자 3.95점, 여자는 3.68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p<.05).

그러나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 분야(신경계 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는 부정적 질문(역 채점)에서는 남자가 3.29점, 여자 3.21점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7).

Table 7. Task(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satisfaction of gender.

Characteristics	Male	Female	t-value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4.17±.73	3.80±.72	3.53**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3.64±.89	2.87±.80	6.31**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4.25±.66	3.88±.66	3.85**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	4.01±.78	3.66±.70	3.27**
나는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 싶다	4.00±.75	3.74±.66	2.58*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4.38±.63	4.01±.75	3.78**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	3.94±.80	3.35±.83	5.02**
나는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4.48±.60	4.14±.62	3.89**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44±.68	4.13±.77	2.93**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	3.79±.95	3.40±.78	3.12**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	3.95±.88	3.68±.68	2.30*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 분야(신경계 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3.29±1.05	3.21±.97	.57
계	4.03±.46	3.66±.43	5.78**

^aM±SD, **p<.01, *p<.05

b. 연령별직무 만족도

연령별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20-29세의 경우 3.84점, 30세~39세는 3.92점, 40세 이상은 3.89점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만족도 직무비전 요인으로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4.02점, 30세~39세는 3.96점, 40세 이상 4.06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20~29세의 경우 3.20점, 30세-39세는 3.54점, 40세 이상 3.39점,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20~29세의 경우 4.06점, 30세~39세는 4.09점, 40세 이상 4.33점,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3.87점, 30세~39세는 3.82점, 40세 이상 3.89점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 싶다"에서는 20~29세와 30세~39세는 3.88점, 40세 이상 4.00점이었으며,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는 20-29세의 경우 3.71점, 30세-39세는 3.66점, 40세 이상 3.61점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직무만족도 직무도입 요인으로 "나는 나의 전공

(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4.20점, 30세~39세는 4.29점, 40세 이상 4.22점으로 나타났으며, "나는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가 20~29세의 경우 4.32점, 30세-39세는 4.41점, 40세 이상 4.22점,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4.28점, 30세~39세는 4.38점, 40세 이상 4.28점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직무인지도 요인의 부정적 질문(역 채점)에서는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에서 20~29세의 경우 3.53점, 30세~39세는 3.79점, 40세 이상 3.78점,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항은 20-29세의 경우 3.80점, 30세~39세는 4.00점, 40세 이상 3.56점이며,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 분야(신경계 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에서는 20~29세의 경우 3.24점, 30세~39세는 3.29점, 40세 이상 3.33점으로 나타났다(Table 8).

c. 경력별 직무 만족도

정형도수업무 경력별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5년 이하의 경우 3.84점, 6~10년은 3.90점, 11년 이상은 4.07

Table 8. Task(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satisfaction of age

Characteristics	20-29age	30-39age	>40years	F-value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4.02±.67 ^a	3.96±.87	4.06±.87	.16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3.20±.92	3.54±.91	3.39±.98	2.69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4.06±.69	4.09±.67	4.33±.69	1.28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	3.87±.68	3.82±.92	3.89±.83	.09
나는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 싶다	3.88±.69	3.88±.79	4.00±.77	.24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4.20±.72	4.29±.65	4.22±.81	.31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	3.71±.87	3.66±.84	3.61±.92	.13
나는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4.32±.63	4.41±.65	4.22±.55	.74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28±.75	4.38±.73	4.28±.67	.36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	3.53±.89	3.79±.97	3.78±.65	1.88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	3.80±.79	4.00±.74	3.56±1.04	2.43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 분야(신경계 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3.24±1.00	3.29±1.06	3.33±.97	.10
계	3.84±.46	3.92±.52	3.89±.53	.34

^aM±SD

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하위요인으로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21점, 6~10년은 3.72점, 11년 이상은 3.63점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98점, 6~10년은 4.04점, 11년 이상은 4.25점이며,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의 경우 5년 이하의 경우 4.07점, 6~10년은 4.08점, 11년 이상은 4.31점으로 나타났으며,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83점, 6~10년은 3.84점, 11년 이상은 4.19점으로 나타났다. "나는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 싶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86점, 6~10년은 3.92점, 11년 이상은 4.13점이며,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에서는 5년 이하와 6~10년은 4.20점, 11년 이상은 4.50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또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에서 5년 이하의 경우 3.66점, 6~10년은 3.72점, 11년 이상은 3.88점으로 나타났고, "나는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4.34점, 6~10년은 4.36점, 11년 이상은 4.25점이며,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4.31점, 6~10년은 4.16점, 11년 이상은 4.44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무만족도 직무인지도 요인의 부정적 질문(역 채점)에서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의 경우 5년 이하의 경우 3.61점, 6~10년은 3.60점, 11년 이상은 3.81점이며,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79점, 6~10년은 4.00점, 11년 이상은 3.94점이었으며,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분야(신경계 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25점, 6~10년은 3.12점, 11년 이상은 3.56점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9).

Table 9. Task(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satisfaction of Previous work experience

Characteristics	<5years	6-10years	>11years	F-value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3.98±.77 ^a	4.04±.68	4.25±.58	.96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3.21±.92	3.72±.94	3.63±.89	4.35*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4.07±.67	4.08±.81	4.31±.60	.91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	3.83±.75	3.84±.90	4.19±.66	1.64
나는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싶다	3.86±.71	3.92±.81	4.13±.62	1.02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4.20±.70	4.20±.82	4.50±.52	1.34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	3.66±.86	3.72±.94	3.88±.72	.48
나는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4.34±.64	4.36±.64	4.25±.58	.17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1±.73	4.16±.80	4.44±.63	.76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	3.61±.88	3.60±1.04	3.81±.91	.38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	3.79±.80	4.00±.82	3.94±.85	.84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 분야(신경계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3.25±1.01	3.12±.97	3.56±1.03	.97
계	3.84±.48	3.90±.58	4.07±.34	1.70

^aM±SD, * $p < .05$

2)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별 만족도

(1) 정형도수치료 직무비전 요인

직무만족도의 비전요인(5점 만점)은 3.8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4.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가 4.01점,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 싶다”에서는 3.89점,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가 3.69점,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3.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Task(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satisfaction of Task vision factor

Characteristics	M±SD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4.01±.75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3.31±.93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4.09±.69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준다.	3.86±.76
나는 처음 입문하는 후배들에게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도록 권하고 싶다	3.89±.72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관한 특강을 자주 듣는다.	3.69±.86
계	3.81±.57

(2) 정형도수치료 직무도입 요인

직무만족도의 직무도입 요인에서는 4.28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에서는 4.34점,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4.30점,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에서 4.22점으로 나타났다(Table 11).

Table 11. Task(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satisfaction of Task introduction factor

Characteristics	M±SD
나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4.22±.71
나는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4.34±.63
나는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30±.73
계	4.29±.58

(3) 정형도수치료 직무인지도 요인

직무만족도의 직무인지도 요인(역 채점: 5점 만점)에서는 3.57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에서는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항에서 3.83점,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에서는 3.62점,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 분야(신경계 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에서 3.26점으로 나타났다(Table 12).

Table 12. Task(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satisfaction of Task awareness factor

Characteristics	M±SD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	3.62±.90
나는 가능하다면 전공(정형도수치료)을 타 분야로 바꾸고 싶다.	3.83±.81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이 타 분야(신경계 등)보다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한다.	3.26±1.01
계	3.57±.67

3) 물리치료사 직업 만족도와 정형도수치료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

물리치료사 직업 만족도와 정형도수치료업무 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 두변수간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즉, 회귀계수가 .52으로써 도수치료만족도가 1 상승하면 직업만족도의 지수도 .5가 상승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설명력은 33.5%(수정된 R²)이었다(Table 13).

Table 13. Regression of job(physical therapist) and task(orthopedic manual therapy part) of physical therapist

Model	비표준화		표준화	t
	B	표준오차	계수	
상수	4.40	2.45	베타	1.79
도수치료만족도	.52	.05	.58	9.97*

*p<.01

IV. 고 찰

본 연구는 정형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여 물리치료사 직업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요인으로 직업만족도에서는 자긍심 요인(5문항), 직업비전 요인(3문항) 등 2개의 하위영역, 직무만족도에서는 직무비전 요인(6문항), 직무도입 요인(3문항), 직무 인지도 요인(3문항)등 3개의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직업만족 및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구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57:43으로 비슷하였으며, 나이는 20~30대가 90.8%, 물리치료사 경력으로는 10년 미만 87.3%, 정형도수치료경력으로는 5년 이하가 79.2% 이었다.

성별에 따른 직업만족도(5점 만점)조사에서 남자는 3.71점, 여자는 3.4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성별 정형도수치료 직무 만족도(5점 만점) 조사에서도 남자는 4.03점, 여자는 3.6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1$). 이러한 결과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박윤기와 박맹조, 1990), 임정도 등(2003), 배원식 등(2011), 이형수 등(2005)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평생 직업으로서의 인식이 여성에 비하여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임정도 등, 2003)

연령과 근무 경력별에 따른 직업 만족도 및 직무만족도 조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경력이 길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것은 물리치료사의 직업만족에 대한 연구(박윤기, 박맹조(1990), 임정도 등(2003), 박성하 등(2002), 안소윤 등(2002), 이형수 등(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것은 연령과 경력이 많아질수록 숙련된 치료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게 됨으로써, 물리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물리치료직에 대한 평생직업의 인식이 만족감을 가져오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물리치료사 직업만족도 조사에서 자긍심 요인(5점 만점)은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문항에서는 “나는 나의 직업(물리치료사)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가 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비전 요인(5점 만점)은 3.213점으로, 문항에서는 “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가 3.63점, “나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 해도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가 3.16점, “나는 내 자녀에게도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다”에서는 2.85점으로 나타난 것은 물리치료의 직업이 외국의 경우처럼 물리치료실 개업이 되어 남의 간섭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직무를 수행 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정형도수치료 직무만족도 조사에서 직무도입 요인(5점 만점)은 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무비전 요인은 3.80점이며, 직무인지도 요인에서는 3.5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비전 하위요인에서는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가 4.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에 자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에서는 3.3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직무도입 하위요인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 한다”에서는 4.34점,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4.30점,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에서 4.22점으로 나타났다. 직무인지도 하위요인에서 “나는 전공(정형도수치료)선택에 대한 나의 결정에 확신이 없다”에서는 3.62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형도수치료 직무가 앞으로 물리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인지는 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교육환경 개선 등 뒷받침이 요구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절실함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직무도입 하위요인 “나의 전공(정형도수치료)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에서 4.22점으로 나타난 것은, 황성수와 권혜정(2012)은 환자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고 하였으며, 심재훈 등(2008)은 물리치료사들이 전공분야 교육을 통해서 본인의 임파워먼트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교육에 대해 동기부여 될 기회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직무도입 하위요인 “정형도수치료가 더 필요해질 것으로 생각한다”에서는 4.34점, “우리나라에서 정형전문물리치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가 4.30점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박혜진 등(2010)의 연구에서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에 대해 물리치료사들의 95.6%, 학생의 89.2%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전문물리치료사 제도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인식도조사에서 59.4%의 물리치료사들이 근골격계 치료영역이 필요하다, 36.2%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학생들은 54.1%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교육환경개선과 전문물리치료사 도입문제, 의료법 개정등에 관심을 가져줌으로서 물리치료사는 전문 인력으로서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수행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및 중소도시에서 근무하며, 정형물리치료업무에 종사하는 197명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는 남자가 112명(56.9%), 여자 85명(43.1%)이었다. 나이는 20세 ~ 29세 123명(62.4%), 30 ~ 39세 56명(28.4%), 40세 이상

18명(9.1%)이었으며, 물리치료사 경력으로는 5년이하 132명(67.0%), 6~10년 40명(20.3%), 11년 이상 25명(12.7%)이었다. 정형도수치료경력으로는 5년이하가 156명(79.2%)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25명(12.7%), 11년 이상 16명(8.1%) 순이었다.

2. 물리치료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직업만족도(5점 만점) 조사에서 남자는 3.71점, 여자는 3.43점, 근무 경력별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는 5년 이하 3.5점, 6~10년 3.69점, 11년 이상 3.87점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 직업만족도 조사에서는 20세~29세의 경우 3.54점, 30~39세 3.57점, 40세 이상 3.9점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직업만족도의 하위 요인별 만족도 조사에서 자긍심 요인은 3.81점, 직업비전 요인은 3.21점으로 나타났다.

4. 정형도수치료에 대한 직무 만족도(5점 만점) 조사에서 남자는 4.03점, 여자는 3.66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연령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20~29세 3.08점, 30~39세 3.92점, 40세 이상에서는 3.89점, 경력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5년 이하의 경우 3.84점, 6~10년 3.90점, 11년 이상은 4.07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직무 만족도의 하위 요인별 만족도 조사에서 직무만족도 비전요인은 3.81점, 직무도입 요인은 4.29점, 직무인지도 요인은 3.57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부 정형도수치료업무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계점과 물리치료사의 직업 만족도와 정형도수 직무 만족도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t-검정과 ANOVA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정함으로써 요인들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만족도와 직무 만족도에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지 못한 점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권미지, 김석환. 광주지역내 물리치료실 이용환자의 물리치료 만족도 조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3; 15(2):185-194.

김명훈.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1;8(1):107-114.

문제강, 송보경, 황병용. 서울특별시 공공의료기관 물리

치료사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10;22(2):61-68.

박성하, 정한신, 최원호. 충북지역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2; 14(4):221-229.

박윤기, 박맹조. 물리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0;11(2):49-63.

박혜진, 정경옥, 경성훈 등. 한국의 전문물리치료사제도에 대한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학과학생들의 인식도 조사. 대한물리의학회지. 2010;5(1):101-112.

배원식, 이건철, 오혜원. 물리치료사의 정서억제와 직무탈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한물리의학회지. 2011;6(2):177-187.

심재훈, 김윤신, 윤태형. 물리치료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조직몰입과의 관계.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08;15(3):70-79.

안소윤, 김원중, 허영배.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근무만족 및 직장애착.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2;14(4):253-2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료기사의 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이형수, 송화경, 김하나 등. 전남 동부지역 물리치료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 만족도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2005;17(1):71-86.

이화식, 배봉진, 한석윤. 치과기공사의 직업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기공학회지. 2012; 34(4):391-401.

임정도, 이기효, 김원중. 물리치료사의 개인 및 직무특성, 전문직업성, 집단응집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병원경영학회지, 2003;8(2):70-92.

전제균. 물리치료사의 근무실태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물리치료학회지. 1991;3(1):9-37.

최외숙. 이종렬. 피부미용사의 근무환경, 스트레스, 직업만족도, 생활만족도에 관한 구조모델. 대한보건연구. 2011;37(1):109-120.

황성수, 권혜정. 졸업후 물리치료사의 교육환경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지. 2012;18(2):57-66.